

그린 스페인



www.spain.info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Publicado por: © Turespaña
 Creado por: Lionbridge
 NIPO: 115-19-029-5

EJEMPLAR GRATUITO

El contenido de este folleto se ha creado con el máximo cuidado. No obstante, si observa algún error, ayúdenos a mejorar enviando un e-mail a brochures@tourspain.es

Portada: Parque Nacional de los Picos de Europa.
 Contraportada: San Sebastián © San Sebastián Turismo & Convention Bureau.

목 차

소개	3
야곱의 길	4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천국	7
훼손되지 않은 자연	10
도시들	12
특별한 매력을 지닌 작은 도시와 마을	17
예술과 문화	19
미식	22
그린 스페인의 사계절	25
실용적인 정보	30



개 요

그린 스페인은 바다, 멘시아 포도 그리고 가정식 요리와 같은 말이다.

그린 스페인의 비밀을 발견해보라. 스페인 북부 전역에 걸쳐 오염되지 않은 해변, 매력적인 마을, 그리고 스페인 북부의 특별한 자연보호구역으로 가는 잊을 수 없는 여정: 바스크와 칸타브리아와 아스투리아스와 갈리시아.

당신은 작은 어촌의 선술집이나 미술랭 스타 식당이나 고급 포도주 저장고에서 파는 맛있는 요리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녁 쇼핑과 잊지 못할 바닷가의 노을을 구경할 준비를 하라.

이곳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천국이다. 편안한 말 타기부터 협곡에서의 래프팅까지. 칸타브리아 바다에서 장관을 이루는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수 있으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유명한 북쪽 루트에서 인생을 바꾸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산세바스티안, 산탄데르, 히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같은 놀라운 도시에서의 삶의 속도에 매료될 것이다. 수세기 역사를 가진 성당에서부터 정말로 놀라운 아방가르드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 명소가 있다. 마지막에는 빌바오나 오비에도 같은 대학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멋진 나이트 라이프가 있다.

당신은 이 모든 것과 그밖에 더 많은 것들을 그린 스페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과 그 마법으로 인해 당신의 감각은 그 한계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성 야고보의 길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제쳐놓고 도보나 기차로 역사적인 길을 따라 스페인 북부를 여행하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은 여행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 당신도 잊을 수 없는 모든 경험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자전거 타고 성 야고보 길 가기

북쪽 루트

성 야고보의 길을 걷는 여러 가지 루트 중 하나는 여러분을 **이룬**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스페인의 쾌적한 북쪽 해안을 따라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의 여행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에 있는 **이룬**(바스크)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이즈키벨** 절벽과 **파사이 도니베인**의 바닷가 마을을 발견할 것이다. **산세바스티안**에 도착

하면 **핀초**라고 불리는 유명한 아페리티프를 즐길 시간이 될 것이고 날씨가 허락한다면, 당신은 **라 콘차** 해변으로 수영하러 갈 수 있을 것이다.

북쪽 루트는 바스크 해안을 따라 우리가 생선 구이를 추천할 수 있는 **오리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해변이 있는 **자라우츠**와 같은 쾌적한 작은 마을들을 지나 **빌바오**까지 데려다 주는데



▲ 유럽인들의 공원
게르니카, 비스카야

거기에서 당신은 전 세계에서 온 서퍼들을 만날 것이다. 또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발렌시아가의 출생지인 **게타리아**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그의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스페인 내전 동안 독일 공군이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폭격을 가한 모든 바스크 사람들을 위한 상징적인 도시인 **게르니카**에 다다른다. 이 사건은 그 도시의 이름을 딴 **파블로 피카소**의 유명한 그림에 영감을 주었다. 이 길은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과 작은 마을들이 산재해 있는 고독한 계곡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지역 사람들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옛 로마 도로를 따라 **칸타브리아**에

도착할 것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림 같은 작은 어촌을 방문할 수 있고 그들의 전통 물고기와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여러분은 **산 비센테 데 라 바르케라**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큰 파편인 **리그눔 크루시스**가 있는 산토 토리비오 데 리에바나(**포테스**) 수도원에서 끝나는 70킬로의 카미노 레비노 레비에고 루트를 걸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아름다운 플라야 데 산 로렌조 해변을 뒤로 하고 **히혼**(아스투리아스)을 떠나면서, 당신의 여행은 옥수수와 다른 식품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전형적인 목조 건축물인 그림 같은 **오레오** 사이에서 계속된다.

산티아고 대성당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여러분은 루아카 같은 고대 항구에서 아주 구슬픈 전설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후 카스트로폴에서 리바데오까지 어라고 불리는 강을 건너면 갈리시아에 닿게 될 것이다.

당신은 소브라도 도스 몬세스의 작은 마을들을 통해 중세시대의 길을 따라 소브라도 라군 같은 천연 보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몬테도 고조에서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호스텔에 머물 수 있고 멀리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의 탑들을 볼 수 있다. 당신의 여정은 거의 끝났다!

최초의 길

이 길은 산티아고로 가는 모든 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9세기 이후 순례자들이 밟은 길을 따라 아스토리아스의 서쪽 내부를 통과한다. 아스투리아스 자치주의 수도인 오비에도에서 출발한다. 그곳은 막대한 유산을 가진 활기찬 도시다. 아스투리아스의 심장부를 여행하면서, 여러분은 큰 강, 가파른 고원, 폭포, 그리고 고대 참나무 숲과 함께 자연의 일부를 느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역사유적으로 지적된 살라스 같은 마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알란데와 그랜다스 드 살라메의 자치구를 지나 가면, 당신은 그곳에서 정말 숨막히는 시에라 데 카론디오와 발레도르의 자연경관 보호 구역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갈리시아에 가까이 가면 살리메 저수지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루트에 합류하기 전 당신은 팔라스 드 레이(루고 주)에서 해발 1,003m의 아름다운 알토 델 아체보 산 정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팔라스 데 레이
루고



스포츠 애호가들의 천국

스페인 북쪽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모험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장소가 된다.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은 서퍼들이 즐겨 찾는 곳인 문다카(바스크)에 온다. 그곳에서 당신은 그 유명한 “윈 파도”를 탈 수 있는데, 그것은 유럽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다. 그것은 높이가 4미터에 너비가 400미터에 달한다!



여러분은 아스투리아 해안에 있는 로딜레스와 자라우츠(바스크)에도 가봐야 한다. 이곳에서는 일 년 내내 서핑을 할 수 있다. 갈리시아 페롤 테라에서 열리는 팬틴 클래식과 같은 국제대회를 둘러싼 특별한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칸타브리아에서는 첫 번째 “자연 서핑 보호구역”(2012년)으로 지정된 리바몬탄 알 마르로 가보라. 수안스와 노자 지역에도 부여된 이 보호구역은 서핑에 알맞은 이상적인 해안의 파도의 독특한 특성을 자랑한다.

그린 스페인에 있는 골프장은 해안선의 환상적인 경치와 맛있는 미식을 제공해줘서 당신의 원기를 되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바위에 파도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마탈레냐(산탄데르)와 폰테베드라의 코스에서 경기를 해라. 여러분은 또한 알라바 산 위의 이즈키 골프장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해 볼 수 있다.

칸타브리아 해와 대서양을 작은 요트로 향해하는 것은 스페인 북부의 해안선을 발견하는 독특한 방법이다. 비고(갈리시아), 카스트로 우르디알레스(칸타브리아)와 같이 작고 인적이 드문 작은 바다, 쾌적한 어촌, 생동감 넘치는 요트 선착장에 접근할 수 있다. 갈리시아의 리아스 바이사스에는 다이빙하러 갈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있다. 만약 당신이 낚시를 좋아한다면, 갈리시아의 랑고스테이라의 자연 해변에 가봐야 한다.

▼ 라 콘차 만
산 세바스티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 야고보의 길은 문화적, 개인적 또는 영적 경험을 즐기려는 수천 명의 여행자들을 위한 목적지다. 녹색의 시골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훌륭하고 건강한 방법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루고의 로마 성벽과 같은 경이로운 기념비적 유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피코스 데 유로파 국립공원은 모든 가족이 갈 수 있는 높은 산길과 오솔길의 낙원이다. 알리바 산맥의 숲속 길을 거닐거나,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봉우리 중 하나인 아스투리아스의 나란조 데 불네스를 등반한다. 여러분은 놀라운 캐레스 협곡을 하이킹하거나 오르디알레 전망대(아스투리아스)에서 멋진 광경을 즐길 수 있다. 산속 피난처에서 밤을 보내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경탄한다.



▲ 피고 데 유로파 국립공원
칸타브리아

칸타브리아를 방문하면 수천 개의 동굴과 구덩이가 있는 멋진 지하 세계를 발견할 수도 있다. 놀라운 바위와 크리스탈 형성을 지닌 독특한 경이로움이 있는 엘 소플라오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보존되어 있는 자연



▲ 시야스 섬
폰테베드라

그린 스페인에 있는 자연 지역의 풍부함, 보존,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다. 국립공원의 생물권 보전지역과 그 밖의 다른 지역의 뛰어난 자연적 풍부함과 생물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즐겨라.

자연공원

그린 스페인에 있는 국립공원을 방문하여 믿을 수 없는 생태환경과 문화적 유산을 즐겨라. 아스투리아스, 칸타브리아, 레온에 있는 **피코 데 유로파 국립공원**에서 모험이 당신을 기다린다. 이곳은 스페인 본토에서 가장 크고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이다. 깊은 **카레스 강의 협곡**이나 유명한 **코바동가 호수** 주변을 하이킹해라. 푸엔테데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눈 덮인 봉우리를 감탄하며 바라보라. 등산, 어드벤처 스포츠,

야생동물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 전체가 제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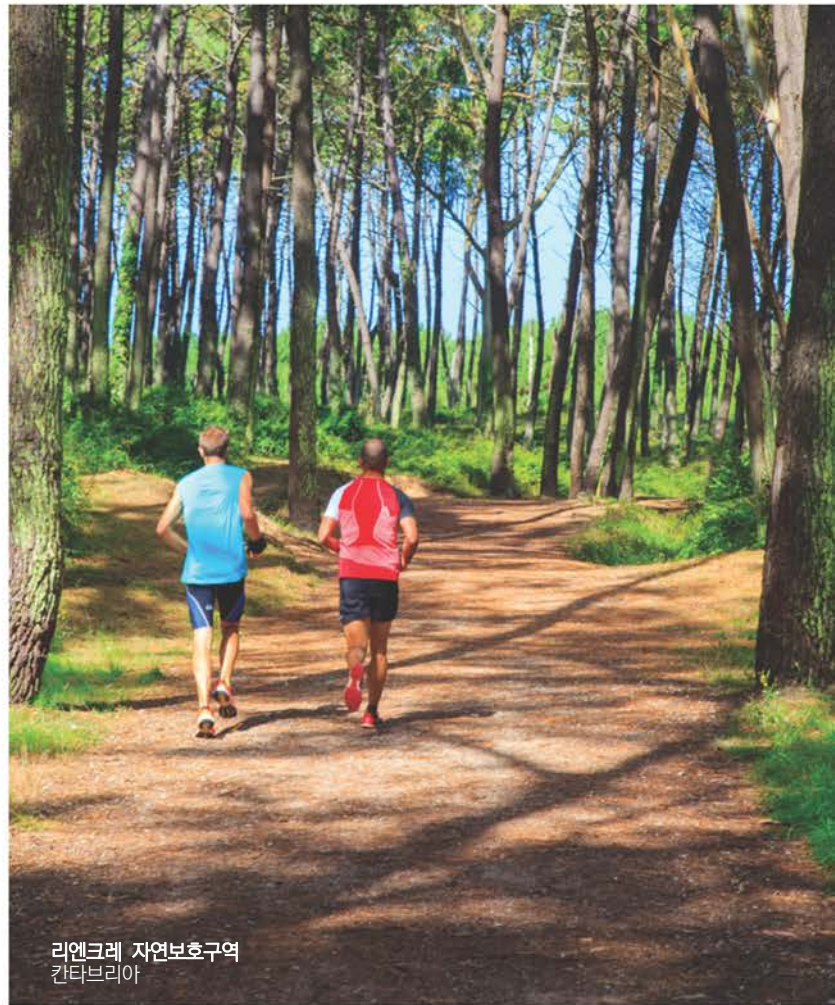
갈리시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와 육지 생태계인 **대서양 제도 국립공원**이 있다. 이곳은 리아스 바이사스 지방에 있는 시야스 섬, 온스 섬, 코르테가다 섬, 살보라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해저가 있는 놀라운 자연의 천국이다. 유럽에서 가장 큰 갈매기 떼 중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연 보호구역과 보호지역

칸타브리아에 도착하면 리엔크레스 자연보호구역의 아름다운 백사장 위에 몸을 뽕고 누워라. 서퍼들에게 유명한 모래언덕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즐길 수 있다. 또는 알타미라 동굴에서 과거로 돌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사시대의 동굴예술을 볼 수 있다.

아스투리아스에는 많은 생태 보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새를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금빛 독수리와 큰 들꿩처럼 멸종 위기에 처한 다른 새들의 서식지인 레데스 자연 보호 구역을 방문해야 한다. 소미에도 자연보호구역은 유럽에서 가장 큰 갈색 곰을 위한 피난처다. 푸엔테스 델 나르시아 자연보호구역은 아스투리아스에서 가장 보호받는 지역인 무니에로스 숲을 포함한다. 그곳에서 당신은 몇 세기 전에 거주자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라스 우비나스-라 메사 자연 보호구역에 있는 너도밤나무 숲과 오래된 로마 길을 따라 산책해 보라.

그리고 아직 더 있다. 갈리시아에서 카펠라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절벽의 발상지이다. 그리고 바스크 해안에 인상적인 절벽을 가진 플라이쉬 루트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은 '왕좌의 게임' 시리즈에서 나온 장소인 산후안 데 가즈텔루가츠의 예배당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리엔크레 자연보호구역
칸타브리아



소미에도 자연보호구역
아스투리아스

도시들

여기 그린 스페인에 있는 몇몇 도시들이 있다: 이 도시들은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활기찬 문화생활과 화려한 기념물로 가득 차 있다.



▲ 핀초
산 세바스티안

산 세바스티안 (바스크)

일단 산세바스티안 바다의 석양을 보고 그 마을의 활기찬 문화생활과 맛있는 요리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싶을 것이다. **빠르떼 비에하** 구시가지로 걸으며 **핀초**라고 불리는 유명한 아페리티프를 즐겨라.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진짜 미식가들을 찾고 있다면 이곳에 제대로 찾아온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있다면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해양 박물관 중 하나인 **아쿠아리움**에서 하루를 보내라. 여러분은 **라 콘차나 온다레타** 같은 환상적인 마을 해변에서도 쉴 수 있을 것이다.

비토리아 (바스크)

이 조용한 내륙의 도시는 환경을 보호하는 모범이다. 이곳에는 자전거로 탐험할 수 있는 수많은 공원과 정원이 있는데, 당신은 비토리아가 2012년 유럽의 녹색 수도로 지명된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활기찬 **중세 마을**을 거닐어 보라. 그러면 **산타 마리아 성당**의 정적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인상적인 13세기 요새 교회는 **아주리아-에네아 궁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통적인 바스크 건축의 아름다운 전범인 이 건물은 바스크 지방 정부 대통령의 관저다.

빌바오 (바스크)

이 도시는 풍부한 산업적 과거와 놀라운 **아방가르드 트렌드**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다.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박물관**은 캐나다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이 도시의 상징이다. 티타늄 외피 위에 자연광이 떨어진 후 하구에 반사되면서 바뀌는 색깔에 놀랄 것이다. 근처에 **미술관**이 있다.



▲ 비즈카야 다리
계초, 비즈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자전거를 타고 창고를 따라 구 시가지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은 화려한 모더니즘 철 구조물인 비즈카야 다리를 넘어 네르비온 강을 건넌다. 일단 마을에 들어가면 당신은 시에테 칼레스 지역의 활기찬 식당과 술집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산탄데르 (칸타브리아)

바다와 산은 산탄데르 만에서 만난다. 배를 타고 소모 해변으로 건너가서 바다에서 특징적인 푸른 산을 바라보라. 여기서 여러분은

새로운 보틴 문화 센터의 실루엣이 어떻게 바다 위를 날아가듯이 펼쳐지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걸으면 라 막달레나 궁전으로 이어진다. 알폰소 13세의 여름 별장이었던 곳을 방문하여 비키니 해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여행한다면, 아이들은 울타리 안에 있는 물개와 펭귄을 좋아할 것이다. 사르디네로 해변에서 전통 “팔라스”(패들 테니스 버전) 게임을 하고 어장에서 맛있는 해산물 저녁을 즐긴다.

히혼

(아스투리아스)

이곳은 칸타브리아 해와 마주보고 있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서, 그 과거가 여행자들에게 선 물거리가 되었다. 시마데빌라 지역을 방문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산 로렌조 해변으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캄포 발데 로만 배스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은 그 마을을 거닐다가 활기찬 어부들의 오두막들을 지나 플라자 델 마르케로 갈 것이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국제 미술 센터가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인 레빌라지고 궁전의 중세 탑들을 바라보면서 감상할 수 있다.

오비에도

(아스투리아스)

주말이면 학생들과 여행자들이 뒤섞여 권위 있는 아스투리아스 공주 상이 있는 장소인 중세 오비에도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여러분은 유명한 고딕 양식의 성당을 방문하여 활기찬 대학 분위기를 느껴보아야 한다. 여러분은 또한 미술관에 가서 중세시대부터 20세기 작품까지 느낄 수 있는 투어를 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역사와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오비에도에는 멋진 궁전들이 있다. 박물관이 있는 벨라르드 궁전부터 18세기의 인상적인 저택인 캄포사그라도 궁전과 바로크 보석인 엘 콘데 데 토레노 궁전까지.



▲ 산 로렌조 해변
히혼

아빌레스

(아스투리아스)

니메이에르 센터는 옛 어촌인 아빌레스를 유럽 문화지도에 등재했다. 플라자 데 에스파냐와 옛 사부고 교회와 같은 놀라운 유적과 구시가 지 건물들을 지나면 이 놀라운 장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루고

(갈리시아)

루고의 인상적인 로마 성벽은 그 시대부터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군사 건축물 중 하나인데,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스파나 로마 다리 같은 주변 지역의 비범한 유적을 방문할 때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던 생활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우렌세

(갈리시아)

설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은 미뇨 스파 루트를 타는 것이다. 눈을 감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다. 차바스케이라의 샘에서부터 부르가스 드 카네도, 무이뇨 다 베이가, 아우타리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놀라운 온천 센터들을 방문하라.



▲ 니메이에르 문화센터
아빌레스



▲ 성당과 로마 성벽
루고



산타이고 데 콤포스텔라 (갈리시아)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자들의 행선지인 이 성스러운 도시에는 마법의 기운이 감돈다. 그 유명한 대학 때문에 정신도 젊고 생활도 풍요롭다.

성당의 신도석과 예배당을 걸으면서 영성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곳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보석으로, 라 글로리아 게이트웨이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지닌 보물을 소장하고 있다. 옥상에 올라가 플라자 델 오브라도이로를 내다보면 잊을 수 없는 경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과 똑같이 산티아고를 체험하고 메르카도 데 아바스토스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라. 이곳에는 누구나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야채, 치즈, 해산물을 요리하는 몇 개의 “시장 부엌” 스타일의 노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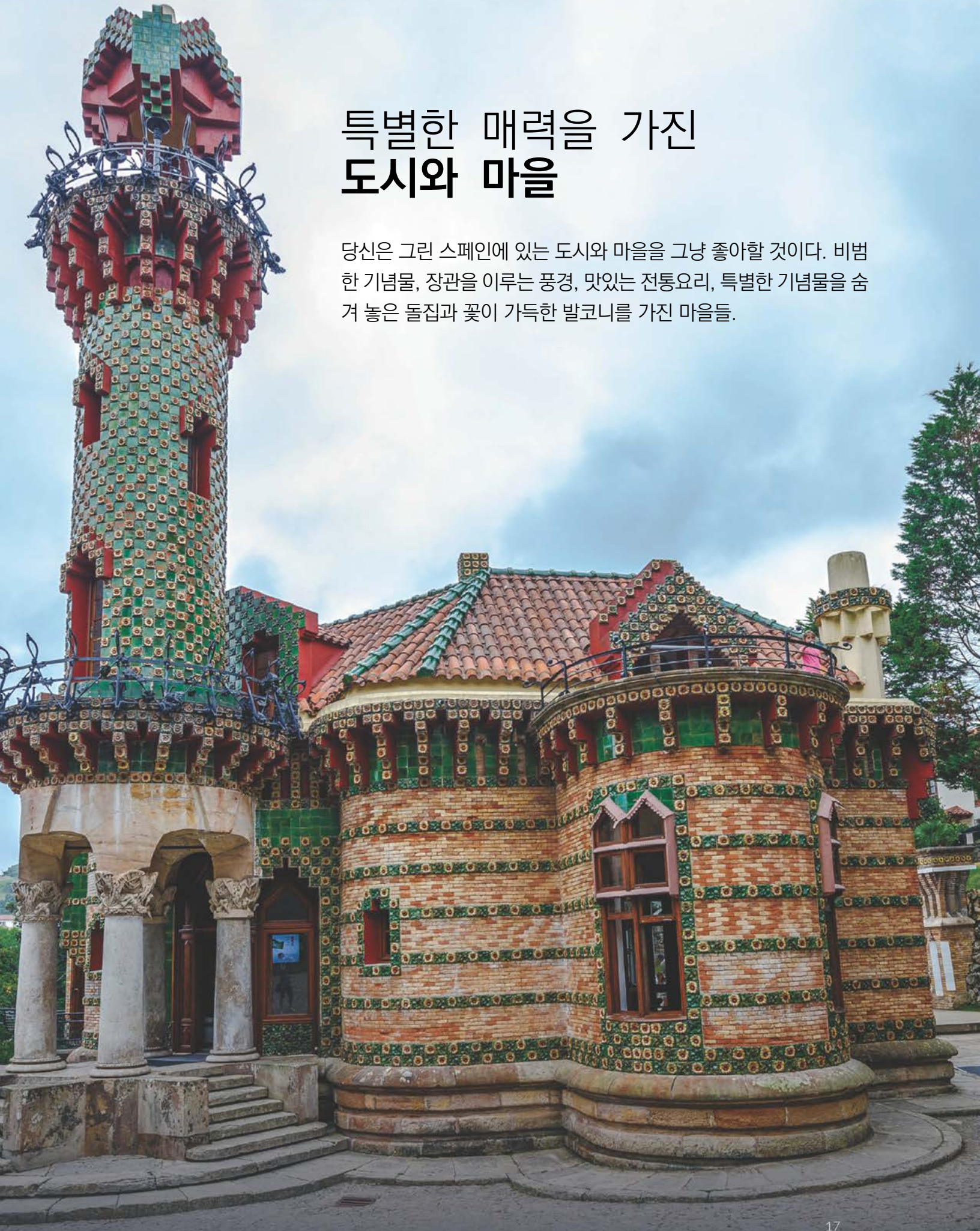
▲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케이크



▲ 글로리아 게이트웨이, 산티아고 대성당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특별한 매력을 가진 도시와 마을

당신은 그린 스페인에 있는 도시와 마을을 그냥 좋아할 것이다. 비범한 기념물, 장관을 이루는 풍경, 맛있는 전통요리, 특별한 기념물을 숨겨 놓은 돌집과 꽃이 가득한 발코니를 가진 마을들.





▲ 산티아나 델 마르
칸타브리아

산티아나 델 마르

산티아고로 가는 길에서 칸타브리아에 있는 중세 마을까지 데려다 줄 **해안 루트**를 이용해보라. 국립 기념물인 마을 센터를 방문하여 아름다운 **산타 줄리아나 대성당**으로 가는 계단에 올라라. 18,000년 된 동굴 미술을 전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알타미라 동굴 박물관**에서 선사시대로 여행해보라.

코미야스

칸타브리아에 있는 이 쾌적한 작은 어촌에서는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인 **가우디**가 디자인한 **카프리스**라고 불리는 매력적인 동양풍의 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을 감상한 후 여러분은 **오안브르 자연 보호구역**에 있는 해변의 고운 모래사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리바데세야

매년 8월 첫 토요일에 열리는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축제 중 하나인 **셀라 강(아스투리아스)의 Descent**에서 카누를 타보라. 만약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한 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이 작고 작은 해안 도시의 해변을 산책하거나, 역사적인 마을을 거닐거나,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동굴 예술 사례 중 하나인 **티토 부스티요 동굴**을 방문할 수 있다.

쿠디예로

아스투리아스의 이 전통적인 항구에서 바닷바람을 들이마시고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여러분은 망루로 올라가기 전에 유명한 **생선 선술집**에 가서 그들의 해산물 요리를 먹어 볼 수 있다. 바다 위로 기울어진 여러 색깔의 집들의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쿠디에로
아스투리아스



▲ 레케이티오
비즈카이아

레케이티오

이 그림 같은 작은 바스크 마을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 오래된 마을에는 레케이티오의 산타 마리아의 아순시온 성당과 같은 고딕 시대의 보석과 많은 궁전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은 항구, 부둣가, 그리고 칸타브리아 바다 위의 전망과 함께 산타 카탈리나 등대까지 산책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여름에 가면 파도가 잠잠한 플레이아스 데 이순츠 해변이나 이즐라 데 가레이츠 해변에서 잠깐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예술과 문화

버려진 성당과 중세 수도원이 있는 신비로운 장소들로 가득한 숨겨진 스페인을 방문하라. 여러분은 과거의 특별한 유적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최신의 예술적 매력들 중 일부를 발견할 것이다.



산토 에스테보 수도원
리바 데 실, 오렌세

리베이라 사크라

갈리시아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오솔길은 당신을 리베이라 사크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곳은 유럽에서 종교적인 로마네스크 건물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 길은 산기슭을 따라 건축된 산 페드로 데 로카스 수도원으로부터 산토 에스테보 수도원처럼 현대적 시설을 갖춘 파라도르 호텔까지 여러분을 데려갈 것이다.

소란스러움과 번잡함을 뒤로하고 리베이라 사크라에서 가득한 평화와 평온을 즐겨라. 깊은 실강 협곡을 가로지르는 발코네스 데 마드리드의 놀라운 광경을 즐겨라.

전설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 고대 로마의 황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산비탈에서 멘차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와인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 산타 마리아 델 나란코
오비에도

아스투리아의 프리-로마네스크 건축

여러분은 프리 로마네스크 건물의 단순하고 깨끗한 라인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인상적인 계곡과 산들 사이에 위치한 이 기념비적인 단지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산타 마리아 델 나란코이다. 나란코 산에서 웅장하게 솟아 있는 이 기념물의 아름다운 실루엣은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할 것이다. 오비에도 시가 내려다보이는 정면에서 멋진 경치가 펼쳐져 있다.

오비에도를 지나가면 또 다른 뛰어난 아스투리아의 프리 로마네스크 기념물인 카마라 산타까지 갈 수 있다. 이곳에서는 보석과 소중한 돌로 만들어진 보물창고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시대로의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보라.

문화센터

디지털 문화 실험실에 참여할 수 있는 산 세바스티안 지역의 타바칼레라 문화 투어를 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나 산탄데르의 보틴 센터를 방문해보라. 그곳에서 당신은 예술, 감정, 그리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히혼(아스투리아스)은 노동 도시 문화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라보랄 예술산업창조 센터로

대표되는 모든 종류의 아방가르드 시안을 제공한다.

진정한 대도시로 설계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시다데 다 컬투라 데 갈리시아는 전위적인 건축물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다. 자맹 리테라리오 정원을 산책하거나 거대한 가이아스 박물관 센터에서 새로운 예술가를 발견해보라.

▼ 타바칼레라
산 세바스티안





▲ 마르케 데 리스칼 와인 저장고
엘시에고, 알라바

미식

그린 스페인에서는 어디에서나 훌륭한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은 에피타이저로 *핀 초*라고 불리는 유명한 아페리티프를 먹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스페인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곁들여 칸타브리아 바다와 대서양에서 온 훌륭한 해산물과 물고기를 먹는 것이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 가지 독특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궁전과 와인 저장고

그린 스페인 루트를 따라 분포한 궁전과 와인 창고에서 문화, 역사, 유서 깊은 음식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멋진 관광이 여러분을 작은 바스크 마을 **훈다리비아**의 궁전 가옥에서부터 갈리시아의 인상적인 **소토마오르**의 성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알라바** 지역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신선한 거품 와인인 **게타리아** (Guipúzcoa)의 “차콜리”를 먹어 보라. 그곳, 엘시에고 구역에서는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한 와인 저장고 내 아방가르드 호텔이 있는데, 티타늄으로 뒤덮인 놀랄 만큼 부드러운 곡선을 볼 수 있다.

“인디아노스”라고 불렸던 아스투리아스와 갈리시아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건설한 아름다운 궁전에 가보라. **라스트레스** (아스투리아스)에 들러 어시장에서 경매를 봐야 하는데, 꽤 장관이다. 운이 좋다면 여정의 끝은 8월에 열리는 **정어리 축제**처럼 **리아 드 비고**에서 열리는 수많은 미식 축제 중 하나를 맛닥뜨릴지도 모른다.

그린 스페인에서 먹고 마시기

그린 스페인은 모든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메뉴를 제공한다. 흰콩, 초리쵸 소시지, 검은 푸딩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천천히 섞어서 만든 캐서롤 요리인 전통적인 **파바다 아스타리아나**를 먹어보라. 아니면 가장 유명한 바스크 요리 중 한 명인 **후안 마리 아르작**의 레시피에서 절묘한 물고기 패테 요리인 **파스텔 드 카브라초**를 선택할 수도 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최고의 해산물은 갈리시아 주변의 바다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바다에서 식탁까지 바로 가져온 거미 게, 가리비, 작은 바닷가재, 불락으로 만드는 맛있는 **해산물 구이**를 시식해보라.

여러분이 **고기**를 더 선호한다면, 사탕수수, 노루, 멧돼지 또는 갈리시아의 최상급 쇠고기로 만든 강렬한 맛을 가진 칸타브리아 요리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은 종종 식사가 끝날 때 나오기 때문에 디저트를 먹을 여지를 남겨두라: 칸타브리아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밀도가 높고 크림 같은 푸딩인 **케사다 파시**가 또는 아몬드, 설탕, 계란으로 만든 갈리시아의 전통적인



▲ “파바다 아스타리아나”(돼지고기와 콩 스투)

디저트인 **타르타 데 산티아고**를 먹어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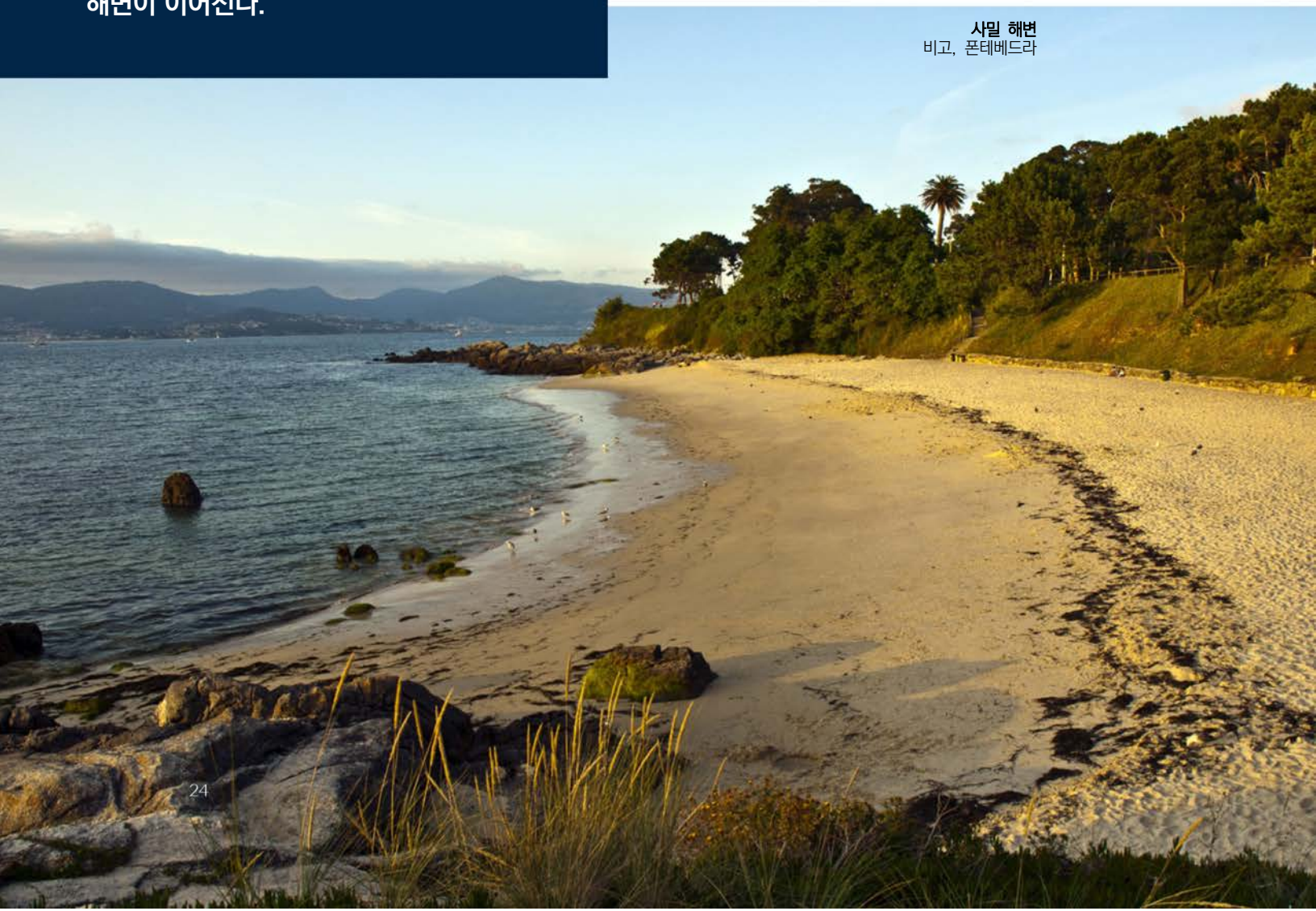
고기는 **리오하 알라베사** 지역의 진한 붉은 와인을 곁들이는 것이 가장 좋고, 해산물을 먹을 때는 갈리시아의 유명한 **알바리뇨**가 좋는데, 바스크와 **리브이로**의 **차콜리**처럼 부드럽고 신선하고 하얀 와인이다. 히혼에서 개최되는 전국 천연 사이다 축제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과로 만든 아스투리아 **사이다**를 마시고 새롭고 날카롭고 상쾌한 맛을 발견해보라. 11월의 두 번째 주말은 칸타브리아의 포테스에서 열리는 **오루조 축제**(포도주박)의 기간이다. 여러분은 지역 음료를 먹어보는데, 음료가 준비되는 전통적인 방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바니에고” 스투와 수제 치즈를 맛볼 수도 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갈리시아에서 온 밀주인 **케이마다**를 달라고 해야 하는데, 불을 붙이기 전에 설탕, 오렌지, 레몬 껍질과 커피콩을 첨가해야 한다.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술랭 스타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급 요리를 맛보는 것은 어떨까? 그린 스페인은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수의 식당이 있는 곳이다.



푸 해변
라네스, 아스투리아스

바스크에서 갈리시아까지 그린 스페인은 멋진 해변이 이어진다.



사밀 해변
비고, 폰테베드라

그린 스페인의 사계절

여러분은 연중 언제라도 멋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아래에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



산 세바스티안에서의 "세마나 그란데"

여름

쾌적하고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갈리시아의 사밀 해변과 같은 편안한 마을에서 해변을 즐기도록 가족을 데리고 가보라. 유명한 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그곳에서 여러분은 배를 타고 시에 제도(비고)의 모래언덕과 절벽의 낙원으로 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해변인 로다스 해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아스투리아스에 있는 푸 해변의 에메랄드 빛 물결이 푸른 목초지로 둘러싸여 있다. 무로스 데 날론에서 다이빙을 하고 엘 실렌시오의 절벽 아래 해변에서 일상을 잊어버려라. 칸타브리아에서는 거대한 사르디네로 해변을 따라 긴 산책을

할 수 있다. 라 콘차 해변에서는 산 세바스티안만의 경치를 볼 수 있다. 8월 중순에 바스크의 이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한다면, 일 년 중 가장 화려한 축제 중 하나인 세마나 그란데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콘서트, 불꽃놀이, 그리고 라 콘차 항구에 해적이 침입하는 이벤트가 포함된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열리는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도 이 도시를 찾기 위해 좋은 이유다. 만약 여러분이 미리 예약을 한다면, 축제와 상영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가을

그린 스페인은 가을 캔버스의 아름다운 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아주 많다. 그 중 하나는 스페인에서 가장 큰 참나무 숲이자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숲 중 하나인 아스토리아스에 있는 무니에로스의 숲이다. 이 계절은 황토색, 노랑, 빨강으로 물든 풍경을 거쳐 가는 하이킹과 사진 촬영에 이상적이다. 지름 6m가 넘는 나무 사이를

걸어보는데, 방문객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찍 여행 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가을은 또한 모여 추수를 축하하는 시간이다. 리오하 알라베사 지역에서 그들은 포도 수확 축제 동안 정말로 멋있게 축하를 한다. 방금 따온 포도를 밟는 독특한 의식을 보면서 불꽃놀이와 대중음악을 곁들인 진정한 와인 축제를 즐겨보라.

▾ 리오하 알라베사





▲ 사이다 와인너리, 산 세바스티안

겨울

지역적으로 *파조*라고 알려진 갈리시아의 위엄 있는 집의 정원에서 화려한 동백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여기의 전설에 따르면 마르코 폴로가 실크로드의 기념품으로 이 섬세한 꽃들을 가져왔다고 한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예시들을 발견할 수 있는 *파조 데 오카*(폰테베드라)까지 그들이 왔던 길을 따라가 보라.

1월은 바스크에서 사이다 시즌의 시작이다. 이제 사이다 제조업자들이 전통 메뉴를 곁들인 계절 사이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여는 초코의 차례가 되었다. *쿠피라*(통)에서 직접 골라 원하는 사이다를 모두 마실 수 있으며, 대구 오믈렛, 후추로 튀긴 대구, *출레타*, 바비큐 고기와 같은 전통적인 바스크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디저트는 이디아자발 치즈, 모과 잼, 호두 등을 맛볼 수 있다.



동백꽃
갈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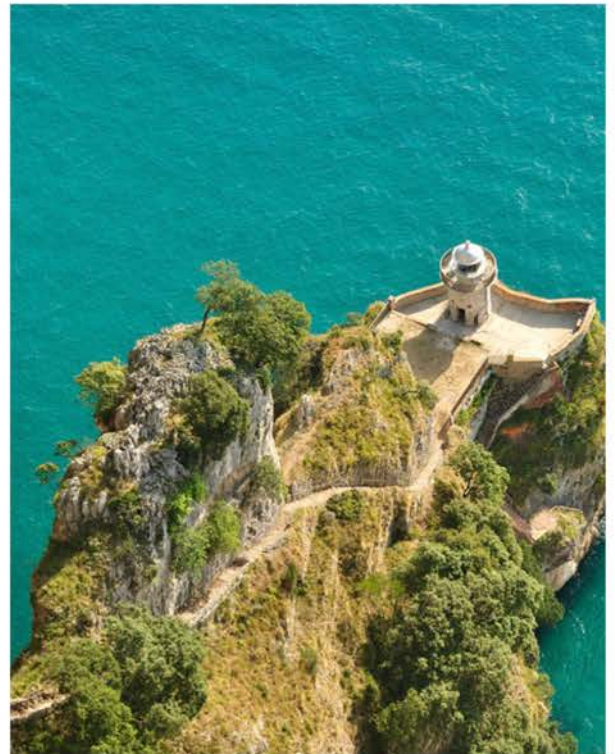


▲ 산토냐 안초비
칸타브리아

봄

칸타브리아의 봄은 온화하다. 올리브유에 절묘하게 담근 참치와 멸치로 유명한 항구인 산토냐 안초비 루트를 가보기에는 이상적인 계절이다. 만약 여러분이 조류 관찰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스페인 북부의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인 마리스마스 드 산토냐 자연 보호구역에서 생태계의 낙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일 년 중 이맘때 자연은 긴 겨울 후에 깨어난다. 이 계절은 아스토리아스 자연 보호구역에 있는 갈색 곰과 다른 야생 동물들이 남긴 발자국을 따라가는 진정한 모험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소미도나 푸엔테스 드 나르세아 자연 보호구역의 멋진 풍경 속에서 이런 동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즐길 것이다.



▲ 카발로스 등대
산토냐 칸타브리아



▲ 코바동가 호수
아스투리아스



▲ 트랜스칸타브리안 열차

실용적인 정보

가는 방법

항공, 육로 및 해상 여행을 위한 광범위한 인프라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그린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에 빠르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빌바오 공항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공항은 스페인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두 곳에는 국제선 연결항공편이 많다. 여러분은 또한 비토리아, 훈다리비아, 산탄데르, 비고, 코루냐, 카스트리온(아스투리아스) 공항도 이용할 수 있다.

스페인 북부의 주요 도시와 마을은 장거리,

중거리, 교외 기차로 연결되어 있다. **렌페 스페인 패스**는 여러분에게 12회까지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있다.

여러분은 또한 세계 최고의 관광열차 중 하나인 **트랜스칸타브리안**, **그린 코스트 열차** 또는 **역사 열차**에서 그린 스페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이다.

자동차로 여행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작은 마을을 방문하기 쉽게 하고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자동차 렌터카 회사가 많이 있다.

믿을 수 없는 파라도르 호텔

궁전, 수도원, 수녀원, 성, 아방가르드 건물. 파라도르 호텔에 머무르면, 여러분은 특별한 자연적 혹은 역사적 장소의 훌륭한 아름다움을 지닌 독특한 숙박시설에서 충분한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성 야고보의 길을 가고 있다면, 갈리시아의 파라도르 호텔들 중 하나인 빌랄바(루고)에서 머물 수 있는데, 이곳은 북쪽 루트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바로 위에 있는 인상적인 요새화된 탑이거나 플라자 델 오브라도로이다. 녹색으로 둘러싸인 채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려면 관광을 위한 아름다운 해안 도시인 에오 강 하구의 리바데오 파라도르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바이오나 파라도르 호텔(폰테베드라)에서 놀라운 일몰을 즐기거나 알바리뇨 와인 지역의 본고장인 캄바도스 파라도르 호텔(폰테베드라)에서 세계 최고의 화이트와인 중 하나를 찾을 수 있다.

아스투리아스에는 몇 가지 독특한 장소들이 있다. 당신은 오래된 수도원에서 머물 수 있다. 오래된 수도원을 개조한 캄가스 데 오니스 파라도르 호텔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동안 여러분은 코바동가 호수를 방문할 수 있다. 캄가스 드 나르세아의 그림 같은 지역인 모나세테리오 데 코리아스 파라도르 호텔에서, 산악 지대와 나르시아 강의 장관을 즐길 수 있다. 도시 지역을 더 좋아한다면, 산 로렌조 해변과 도심에서 조금만 걸어서 오래된 제분소를 개조한 히혼 파라도르 호텔로 갈 수도 있다.



▲ 푸엔테 데 파라도르 호텔
칸타브리아

칸타브리아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궁전인 림피아스 파라도르 호텔에서 왕처럼 잠을 잘 수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이웃지역의 도시와 마을을 방문하기에도 좋다. 아니면 매력적인 칸타브리안 저택인 산틸라나 델 마르 파라도르 호텔에 머물면서 알타미라 동굴에서 아주 가까운 이곳의 아름다운 중세 마을의 분위기를 즐길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푸엔테 데 파라도르 호텔에서 높은 산에 둘러싸인 채 잠을 청할 수도 있다.

만약 여러분의 목적지가 바스크라면, 시골에서만 가능한 평화와 고요를 즐길 수 있는 르네상스 궁전을 개조한 아르고마니즈 파라도르 호텔에서 리오하 알라베사 지역에서 나는 최상의 미식과 와인을 즐길 준비를 해라. 여러분은 또한 같은 이름의 해변 마을에 있는 온다리비아 파라도르 호텔의 한 성에서 프랑스 해안의 놀라운 경치를 볼 수 있다.

①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rador.es을 참조하십시오.




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



TURISPAÑA

 @spain

 @spain

 Spain.info

 /spain